保健敎育 · 健康增進學會誌 第21卷 第3號(2004. 9) pp.67-86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1, No.3(2004)

대학생 알코올의존의 요인

이원재
경원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대상 및 방법
Ⅳ. 분석결과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이원재 등, 1999; 천성수 등, 2001). 대학생 대상의 음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술을 마신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한 학생도 46%에 달하고 있다(천성수 등, 2001). 음주는 다른 약물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중독자들은 동일인이 다수의 물질에 동시에 중독되거나 하나의 약물에 하나씩 차례로 또는 어떤 물질을 쓰다가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중독된다(Peele, 1985). 술은 여러 약물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대학생들이 이를 즐겨 마시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알코올에 의존되면 다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의 알코올의존은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생산성 높은 부양계층의 손실을 초래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할 젊은 시절을 상실하여 자립해야 할 성인기 이후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인기 이후의 약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의존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코올의존은 생심리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의존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인성적 특성들을 동시에 분석한 접근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복합적인 실증분석이 충분히 이루

교신저자 : 이원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4 경원대 의료경영학과
전화번호: 031-750-5370, E-mail: health21@kyungwon.ac.kr

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인구집단의 경우와 같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에는 많은 연구들이 주로 대학생들의 음주실태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알코올의존의 실태와 알코올의존 대학생의 특성, 알코올의존 모형설정과 알코올의존의 예방에 관한 연구가 적었다.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해온 경향이 있으며, 환경적, 심리적, 경제적, 정서적, 인성적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김영란, 1999; 이원재 등, 1999; 윤혜미, 2000). 알코올의존에 대한 정확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기 어려운 것이다. 음주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의 영향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알코올의존을 예측할 수 있다면 알코올의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음주습관 형성에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및 기타 경제적 요인 등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그동안의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적 요인의 연구에 치중하였었고, 이후에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김영란, 1999; 윤혜미, 2000).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분석만으로는 알코올의존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생활양식과 심리적 특성, 경제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성적 특성 등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아울러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성적 특성 등을 포함시켜 음주습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알코올의존은 단일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의 유전적 요인, 심리적 특성, 감정적 요인, 환경적 특성 등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알코올의존이 이후 성인기의 알코올의존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알코올의존의 요인을 고찰하는 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연령층이 섞여있는 대학생의 알코올의존의 요인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유전적 요인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수의 연구들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Huba와 Bentler(1977), Zucker와 Noll(1982), White 등(1990)은 성격(personality)과 인지(cognition) 요인들이 부모와 동료의 영향과 결합되어 청소년기의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Hatterer(1982)는 성격적 요인들이 유전적, 문화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중독의 감수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Zucker 등(1986)과 Sutker와 Allain(1988)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행동화경향(hightened activity), 각성경향(arousability), 두려움, 우울증 등의 음주와 약물문제에 선행하는 다수의 공통된 심리적 특성들을 규명하였다.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청소년기 이후의 알코올의존을 일관성있게 예측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공통된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경향

(behavioral dispositions)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된 특성은 통념에 얽매이지 않음(unconventionality), 자아 통제 부족(low ego-control), 센세이션 추구(sensation seeking), 충동성(impulsivity), 호전성(aggression), 만족을 지연할 수 없음(in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등이었다.

White 등(1986)은 친구의 음주, 친구의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으로 측정되는 타인과의 연관이 청소년기의 음주에 대해 가장 유의한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Johnson(1988)도 타인과의 연관이 지속적인 알코올 사용과 가장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kers 등(1979)은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 알코올에 대한 신념, 알코올 사용의 강화요인 등이 청소년과 노인들의 음주양태를 설명하는데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연관이 음주양태의 가장 강한 예측치였다.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타인은 주로 부모와 친구로 밝혀졌다.

Bates와 Labouvie(1995)는 일탈적인 타인과의 연관(deviant differential associations), 탈금제성(disinhibition), 충동성(impulsivity), 부모의 통제 부족(poor parental control)이 약물사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환경이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사이의 불일치가 약물사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Huba와 Bentler(1977), Zucker와 Noll(1982), White 등(1990)은 부모와 친구의 영향 등이 성격 및 인지적 특성과 결합되어 청소년기의 알코올의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Rogosch 등(1990)은 알코올 의존의 가족력과 성격적 구성(personality constructs)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성격적 위험(예를 들면, 높은 공격성과 충동성)은 알코올의존에 대한 가족력의 영향을 강화시켰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자아인지(self-awareness)는 알코올 의존의 가족력과 알코올 사용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Stacy 등(1991)은 음주문제와 음주운전을 예측하기 위해 성격적 변수와 알코올 사용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센세이션 추구, 우울성향, 사회적 순응(social conformity), 적대감(hostility), 인지적 동기(cognitive motivation)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성별에 관계없이 알코올의존 및 음주운전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외향성(extroversion)은 코카인 사용의 사회적 영향의 예측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음주를 비롯한 약물 사용에서 또래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알코올의존은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심리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성적 요인 등이 결합되어 결정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음주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알코올의존의 형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알코올의존의 형성은 사회집단이 감정적 요구에 대한 대응기전으로서의 음주를 가르치고 강화하는 경우에는 취약한 성격(vulnerable personalities)과 성격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집단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상호적 사회학습모형(interactive social learning model)을 뒷받침하고 있다(Curran 등, 1997). Biddle 등(1980)과 Zhang 등(1997)이 분석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전기와 후기에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타자는 각기 다르다. 청소년 전기의 음주 시작은 부모의 음주와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후기의 음주는 친구의 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전기에는 부모에의 의존이 강한 시기이므로 부모의 영향이 크지만 자아가 성숙해가고 친구가 중요해지는 청소년 후기에는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알코올의존에 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알코올의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아울러 환경적 특성, 심리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성적 요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횡단면 분석으로 수집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연관성 분석 등을 통한 제한된 범위에서 알코올의존이 이러한 각 요인들과 아울러 경제적 합리성의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 요인도 분석하였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외국의 다양한 음주조사 도구들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은 대부분 구조화된 설문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부 개방형 설문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대학생들의 음주요인과 양태에 대한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이미 개발된 NAST의 12개의 조사항목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또한 인성적 특성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일부 표본에 대하여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현재의 금전가치와 미래의 금전사치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설명해주고 조사표 작성이 끝난 후에 회수하였다.

2. 알코올의존의 정의

알코올의존의 진단을 위해서는 NAST 도구를 통한 검사, CAGE에 의한 검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NAST를 진단도구로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알코올의존자와 비의존자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비의존자를 일반음주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NAST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개발한 알코올의존 진단도구이다.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4개 이상이 양성일 때 알코올의존이 의심된다. 알코올의존을 진단하는 도구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NAST를 사용하였다.

3. 표본 및 추출방법

이 조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을 지역별로 할당하였으며, 그 지역 중에서 조사의 협조를 얻기 쉬운 대학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들은 경기도의 2개 대학교(K대학교와 Y대학교), 강원도의 1개(H대학교), 전라북도의 1개(W대학교)로 모두 4개 대학이었다. 이들 4개 대학교의 일부 강좌를 선정하여 이 강좌들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000 부의 조사표를 배포하여 745부가 회수되었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NAST에 의해 판정한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을 추정하였다.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은 조율과 아울러 연령표준화율을 추정하였다.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인 시간선호 요인들, 심리적 요인, 정서적 요인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음주대학생을 NAST에 의해 알코올의존으로 판정된 알코올의존자와 일반 음주자로 구분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각 요인에 대해서 연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x^2-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다면적 인성검사 항목별 평균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

<표 1> 응답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

(단위 : %)

연령	남자	여자	전체
~18	5.9	13.5	9.4
19	14.4	23.1	18.4
20	12.3	24.9	18.1
21	4.6	20.4	11.9
22	6.7	9.0	7.7
23	13.6	3.6	9.0
24	15.9	1.8	9.4
25	10.0	.9	5.8
26	16.7	3.0	10.4
전체	100.0 (N=390)	100.0 (N=334)	100.0 (N=724)

2. 알코올의존

1) 성별 · 연령별 알코올의존자 비율

NAST로 측정한 대학생 알코올의존자의 조율(crude rate)은 남학생이 6.2%, 여학생이 3.6%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알코올의존자 비율을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인구분포에 표준화하여 표준화 알코올의존자 비율을 추정하였다. NAST에 의한 연령표준화 알코올의존 대학생의 비율은 0.6%였으며, 남학생의 0.7%, 여학생의 0.5%가 알코올의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NAST로 추정한 알코올의존자 비율을 이용하여 전국 대학생 중의 알코올의존자 수를 추정한 결과 알코올의존 대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9,3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일반적 특성 비교

(1) 음주시작 평균 연령

응답자들이 음주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17.97세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03세 이었다. 일반음주자들은 평균 18.03세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알코올의존자들은 평균 16.82세에 술을 마

시기 시작하였다. 두 집단의 음주시작 평균 연령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p<0.01$) 차이가 있었다. 즉,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일반음주자 집단보다 평균 1.2세 정도 일찍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음주자의 학년별 분포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중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는 2학년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 24.6%, 1학년 23.1%, 4학년 14.9%의 순이었다. 일반음주 집단은 2학년이 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 24.8%, 1학년 23.3%, 4학년 14.5%의 순이었다. 알코올의존자 집단은 2학년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학년 23.7%, 1학년과 3학년이 각 각 21.1% 씩이었다. 일반음주 학생과 알코올의존 학생 사이의 학년별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2> 대학생 성별 연령별 알코올의존자 비율

연령	남			여		
	전국대학생수	조율(%)	기대 알코올의존자수	전국대학생수	조율(%)	기대 알코올의존자수
~18	96,209	0.3	289	78,396	0.9	706
19	129,695	0.8	1,038	102,802	0.3	308
20	139,087	0.8	1,113	106,244	0.3	319
21	133,604	0.5	668	100,151	0.9	901
22	117,636	0.3	353	61,604	0.3	185
23	108,129	1.0	1,081	30,140	0.3	90
24	95,014	1.3	1,235	14,352	0.0	0
25	65,022	0.8	520	7,749	0.3	23
26~	77,450	0.5	387	14,431	0.3	43
합계	961,846	6.2	6,684	515,869	3.6	2,576

<표 3> 대학생 알코올 의존자 비율

(단위 : %)

구분	남	여	계
조율	6.2	3.6	5.2
연령표준화율	0.7	0.5	0.6

<표 4> 음주시작 평균 연령 비교

	일반음주 (S.D)	알코올의존 (S.D)	t	유의확률
평균 연령	18.03 (1.98)	16.82 (2.49)	2.78	$p<0.01$
n	606	34		

<표 5> 음주자의 학년별 분포

학년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전체
1학년	23.3	21.1	23.1
2학년	37.4	34.2	37.3
3학년	24.8	21.1	24.6
4학년	14.5	23.7	14.9
전체	100.0 (n=705)	100.0 (n=38)	100.0 (n=743)

x^2=2.44 p>0.05

(3)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인식

건강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94.7%였다.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인지에 대한 인식의 분포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인생의 의미나 목적

인생을 사는 의미나 목적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7.2%만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2.8%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4명 중에서 1명 정도로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이 지식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인생의 목적을 정립하는데는 매우 부족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종교의 종류, 자신의 운명을 타인이 결정한다고 인식하는지, 운명을 믿는지, 자제력, 자기평가 건강수준, 내세에 대한 믿음의 분포에서도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흡연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분포도 예상한 바와 같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매우 유의하게 많았다. 흡연자의 비율은 일반음주자 집단이 31.2%인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65.8%로 두 집단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알코올의존자일수록 동시에 흡연도 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술이나 약물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동시에 중독되거나 또는 하나씩 차례차례 대체하

<표 6>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인식 및 인생의 의미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전체	x^2	p
-자신의 책임		100.0 (n=664)	100.0 (n=38)	100.0 (n=702)		
	아니다	5.6	0.0	5.3	2.24	>0.05
	그렇다	94.4	100.0	94.7		
-인생의 의미나 목적		100.0 (n=705)	100.0 (n=39)	100.0 (n=744)		
	없음	12.9	17.9	13.2	0.82	>0.05
	있음	87.1	82.1	86.8		

는 방식으로 중독된다고 Peele (198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술과 담배는 둘 중의 한 가지에 의존할 경우 다른 것에도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사실이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와 흡연은 예방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존의 예방사업들이 음주와 흡연, 약물사용을 나누어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을 결합하여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4) 환경적 요인

(1) 친지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 또는 친구나 애인 등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음주나 약물 사용의 문제가 있는지,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또는 미워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은 부모와 형제, 자매 또는 친구나 애인 등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음주나 약물 사용 문제이었다. 일반음주자 집단에 비해서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부친에게 하나 이상의 음주나 약물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일반음주자 집단에서는 부친에게 하나 이상의 음주나 약물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17.3%인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는 26.5%로 4

<표 7> 흡연

흡연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전체
안한다	68.8	34.2	67.0
한다	31.2	65.8	33.0
전체	100.0 (n=693)	100.0 (n=38)	100.0 (n=731)

x^2=19.54 p<0.01

<표 8> 친지의 음주 · 약물사용 문제

음주/약물 문제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전체	x^2	p
- 부친	100.0 (N=623)	100.0 (N=34)	100.0 (N=657)	9.25	<0.05
없음	79.5	61.8	78.5		
있음	17.3	26.5	17.8		
잘 모르겠음	3.2	11.8	3.7		
- 모친	100.0 (N=617)	100.0 (N=33)	100.0 (N=650)	6.21	<0.05
없음	94.8	84.8	94.3		
있음	2.6	9.1	2.9		
잘 모르겠음	2.6	6.1	2.8		
- 친구 · 애인	100.0 (N=611)	100.0 (N=32)	100.0 (N=643)	6.75	<0.05
없음	76.1	56.3	75.1		
있음	18.3	31.3	19.0		
잘 모르겠음	5.6	12.5	5.9		

명 중에서 1명 이상의 비율로 부친에게 음주나 약물 사용 문제가 있었다. 이는 부친의 음주나 약물 사용 문제가 자녀의 알코올의존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 아버지의 음주·약물사용 문제

대학생의 알코올 의존과 아버지의 음주·약물 사용 문제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NAST 검사 결과 알코올의존의 문제가 없는 일반음주자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음주나 약물사용 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응답자는 17.3%였으나, NAST 검사 결과 알코올 의존으로 판정된 응답자들은 음주나 약물사용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26.5%로 두 요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다.

(3) 어머니의 음주·약물사용 문제

NAST 검사결과 알코올의존의 문제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 어머니에게 음주나 약물 사용에 문제가 있는 응답자는 2.6%인 반면에 알코올의존의 문제가 있는 응답자들 중 9.1%가 어머니에게 음주와 약물 사용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어머니의 음주나 약물사용 문제가 자녀의 알코올의존과 유의하게 ($p<0.05$)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친구의 음주·약물사용 문제

NAST 검사결과 알코올의존과 친구의 음주 또는 약물문제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NAST에 의해 일반음주자로 판정된 응답자들 중에서 친구 중에 음주나 약물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18.3%였으며, NAST 검사 결과 알코올의존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응답자들 중에서 음주나 약물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31.3%로 NAST에 의한 알코올 의존과 친구의 음주나 약물사용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p<0.05$).

이 결과는 친구나 애인 등 자신과 가까운 의미있는 타인의 알코올의존 여부가 대학생의 알코올의존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Biddle 등, 1980; White, 1986; Johnson, 1988; Zhang 등,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부모, 친구나 애인의 음주 또는 약물 사용 문제는 대학생의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분석결과이다.

(5)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

어머니가 자신을 신뢰하는지의 분포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매우 유의한 ($p<0.01$)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는 13.7%인 반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는

<표 9>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전체	x^2	p
- 어머니의 신뢰	100.0 (n=695)	100.0 (n=39)	100.0 (n=734)		
신뢰하지 않는 편	13.7	30.8	14.6	10.50	<0.01
중간	44.9	46.2	45.0		
신뢰하는 편	41.4	23.1	40.5		

30.8%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자의 분포도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41.4%인 반면에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는 23.1%씩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신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미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자신의 음주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등의 분포에서는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5) 심리적 특성

(1) 사고 싶은 물건 즉시 구매

사고 싶은 물건을 즉시 구매해야 하는 성향에 따른 분포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즉시 구매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46.9%,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64.1% 씩 이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즉시 사야하는 사람의 분포가 일반음주자 집단보다는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더 많았다.

(2) 자아통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일반음주자 집단이 21.2%인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는 38.5%로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일반음주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5$). 이는 알코올의존이 자아통제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이를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알코올의존으로 이행하지 않는데 비해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알코올의존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제력을 기르고 술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생의 알코올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3) 공격적 성향

일반음주자에 비해 알코올의존자 중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유의하게 많았다($p<0.01$). 일반음주자 집단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응답자가 31.1%인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응답자가 56.3%로 큰 차이가 있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대학생일수록 알코올의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격성과 알코올의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힌 Zucker(1986) 및 Sutker와 Allain(198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4) 충동적 성향

일반음주자에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자신이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응답자의 분포가 매우 유의하게 많았다($p<0.01$). 충동적인 성향과 알코올의존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대학생은 알코올에 의존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리적 특성들 중에서 노력과 성공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매일 목욕이나 샤워 여부,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보다 오늘을 위하여 사는지의 여부, 여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는 대학생의 분포에는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술로 인한 정신적 · 사회적 피해에 대한 인식,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도박 경험 등의 분포도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오늘을 중심으로 산다는 대학생의 분포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5) 운동실시의 적극성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적극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응답자의 분포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44.0%인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은 64.1%로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6) 경제적 요인

월간 가구 소득 수준, 시간선호의 차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가구의 소득수준의 분포나 평균 가구 소득은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합리성이 알코올의존과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금전가치와 미래의 금전가치 사이의 선호의 분포가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유의하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금전가치와 미래의 금전가치 사이의 선호도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

<표 10>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전체	x^2	p
- 사고 싶은 물건은					
즉시 구매한다	100.0 (n=697)	100.0 (n=39)	100.0 (n=736)	4.37	<0.05
아니다	53.1	35.9			
그렇다	46.9	64.1			
-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100.0 (N=699)	100.0 (N=39)	100.0 (N=738)	6.42	p<0.05
아니다	78.8	61.5	77.9		
그렇다	21.2	38.5	22.1		
-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100.0 (N=698)	100.0 (N=39)	100.0 (N=737)	10.81	<0.01
아니다	68.9	43.6	67.6		
그렇다	31.1	56.4	32.4		
- 나는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다	(N=697)	(N=39)	(N=736)	13.71	<0.01
아니다	53.5	23.1	51.9		
그렇다	46.5	76.9	48.1		
-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100.0 (N=698)	100.0 (N=39)	100.0 (N=737)	6.04	<0.05
아니다	56.0	35.9	55.0		
그렇다	44.0	64.1	45.0		

결과에 따르면 미래의 금전가치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알코올의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분석 결과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알코올의존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는 합리성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음주의 편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음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의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알코올의존의 폐해를 교육 또는 홍보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이 결과만 보면 대학생들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행위는 경제적 판단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기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7) 정서적 요인

정서적 요인으로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술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 감정을 각 각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은 동일한 차원의 감정들을 사용하였고, 각 차원의 감정에 대해서는 유사한 감정들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1)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

정서적 요인들로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정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우선 행복함, 긴장이 풀림, 평화로움, 고요함, 안전함, 우월함, 사교적임, 친근함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강함, 섹시함/매력적임, 정력적임, 근심이 없음, 흥분됨, 두려움 없음, 건강함 중에서 해당되는 감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죄책감, 분노, 낙심, 들뜸, 긴장, 은둔, 신경질적임, 두려움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함, 슬픔, 친밀감 없음, 열등감, 따분함, 약함, 외로움, 신체가 아픔 등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NAST의 판정에 의한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 풀림 등의 차원의 8가지 감정 중에서 느끼는 감정의 가지 수에 유의한($p<0.05$) 차이가 있었다. 일반음주자 중에는 2가지 이하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84.6%, 3가지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15.4%씩 이었는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중에는 2가지 이하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69.2%, 3가지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30.8%씩 이었다. 술을 마시는 중에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풀림 등 차원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일반음주자 집단보다 많았다.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흥분됨, 근심 없음, 건강함 등 차원의 감정의 개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느끼는 분노, 낙심, 들뜸 등의 차원의 감정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분노, 낙심, 들뜸 등의 차원의 감정을 3가지 이상 느끼는 응답자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1.7%,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10.3%씩 이었다.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느끼는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차원의 감정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이 차원의 감정을 3가지 이상 느끼는 사람은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4.2%였으며,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12.8%였다.

(2)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과 알코올의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x^2검정을 실시하였다.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으로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차원의 감정들을 사용하였다.

NAST 검사에 의한 일반음주자와 알코올 의존자 사이에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으로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이 풀림 등의 감정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다.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풀림 등의 감정의 가지 수가 3개 이상인 학생들의 분포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14.3%인데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는 28.2%였다.

흥분됨, 근심없음, 건강함 등의 감정의 개수에서는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흥분됨, 근심없음, 건강함 등의 감정의 개수가 4개 이상인 응답자의 분포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는 2.3%,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12.8%씩 이었다.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감정

<표 11>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

(단위 : %)

감정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x^2	p
-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 풀림 등의 감정(A)				
2개 이하	84.6	69.2	6.39	<0.05
3개 이상~8개 이하	15.4	30.8		
- 흥분됨, 근심 없음, 건강함 등의 감정(B)				
3개 이하	97.5	92.3	3.57	>0.05
4개 이상 ~7개 이하	2.5	7.7		
- 분노, 낙심, 들뜸 등의 감정(C)				
2개 이하	98.3	89.7	12.88	<0.01
3개 이상~8개 이하	1.7	10.3		
-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감정(D)				
2개 이하	95.8	87.2	6.06	<0.05
3개 이상~8개 이하	4.2	12.8		
전체	100.0 (N=706)	100.0 (N=39)		

*A: 행복함, 긴장이 풀림, 평화로움, 고요함, 안전함, 우월함, 사교적임, 친근함
B: 강함, 섹시함/매력적임, 정력적임, 근심이 없음, 흥분됨, 두려움 없음, 건강함
C: 죄책감, 분노, 낙심, 들뜸, 긴장, 은둔, 신경질적임, 두려움
D: 불안함, 슬픔, 친밀감 없음, 열등감, 따분함, 약함, 외로움, 신체가 아픔

으로 흥분을 느끼거나, 근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건강하다는 등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응답자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알코올의존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일반 음주자와 알코올 의존자 사이에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으로 분노, 낙심, 들뜸 등 차원의 감정의 수에 매우 유의한 ($p<0.01$) 차이가 있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으로 분노, 낙심, 들뜸 등의 감정을 3개 이상 느끼는 응답자의 분포는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5.9%,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20.5% 씩 이었다.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일반음주자 집단에 비해 분노, 낙심, 들뜸 등의 차원의 감정을 느낄 때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으로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차원의 감정 수에 있어서 일반 음주자 집단과 알코올 의존자 집단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 ($p<0.01$)가 있었다.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감정을 느낄 때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응답자의 분포가 일반음주자 집단에 비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매우 유의하게 많았다.

8) 인성적 특성

일반음주자와 알코올 의존자 사이에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의 값 중에서 Mf, Pa의 평균값에서만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다.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평균값은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표 12>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

감정	일반음주	알코올의존	x^2	p
-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 풀림 등의 감정(A)				
2개 이하	85.7	71.8	5.59	<0.05
3개 이상~8개 이하	14.3	28.2		
- 흥분됨, 근심 없음, 건강함 등의 감정(B)				
3개 이하	97.7	87.2	15.03	<0.01
4개 이상 ~7개 이하	2.3	12.8		
- 분노, 낙심, 들뜸 등의 감정(C)				
2개 이하	94.1	79.5	12.52	<0.01
3개 이상~8개 이하	5.9	20.5		
-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감정(D)				
2개 이하	96.6	82.1	19.62	<0.01
3개 이상~8개 이하	3.4	17.9		
전체	100.0 (N=706)	100.0 (N=39)		

*A: 행복함, 긴장이 풀림, 평화로움, 고요함, 안전함, 우월함, 사교적임, 친근함
B: 강함, 섹시함/매력적임, 정력적임, 근심이 없음, 흥분됨, 두려움 없음, 건강함
C: 죄책감, 분노, 낙심, 들뜸, 긴장, 은둔, 신경질적임, 두려움
D: 불안함, 슬픔, 친밀감 없음, 열등감, 따분함, 약함, 외로움, 신체가 아픔

다. Mf는 일반음주자 집단보다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높았는데 Mf는 남성특성-여성특성을 측정·진단하는 척도로 이 척도 값이 크면 정형화된 남성적 흥미가 부족하고, 심미적이며, 예술적인 관심이 높다. 또한 때로는 성적 자아정체에 갈등이 있으며 자신의 남성적 역할에 대하여 불안정하며, 여성적 역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다(한국가이던스, 1994).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60에서 70점 사이의 점수가 보편적이다. 이 조사의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의 Mf 척도 평균은 각 각 49.5와 53.2로 모두 60점을 밑돌고 있다.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남자는 거의 강박적으로 남성적 특성을 과시하려는 사람으로 공격적이고, 모험적이며, 거칠고, 부주의하며, 남성적 흥미를 강조한다.

Pa 척도의 평균값은 일반음주자 집단에서 46.3 알코올 의존자 집단에서 56.5로 모두 알코올 의존자 집단에서 높았다. Pa는 편집증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심이 많고, 적대적이며, 경계심이 많고, 지나치게 민감하며, 논쟁을 좋아하고, 남의 탓을 잘한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집이 세고, 회피적이며, 지나치게 조심스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고, 문제해결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V. 요약 및 결론

알코올의존율을 NAST 검사에 의해 추정한 결과 조율은 5.2%였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6.2%, 여학생이 3.6%씩 이었다. 연령표준화 알코올의존율은 0.6%로 남학생이 0.7%, 여학생이 0.5%씩 이었다.

알코올의존의 원인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이 주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중에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다. 이 연구에서는 알코올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주를 시작한 연령이 일반음주자 집단보다 알코올의존자 집단에서 약 1.2세 정도 매우 유의하게 낮았다. 알코올의존자 집단에는 음주를 일찍이 시작한 대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7.2%에 불과하였다. 인생을 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을 대학생들이 오히려 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의 결여는 일시적 쾌락의 추구와 그 수단의 일환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의 결과에서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인식의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응답자와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분포는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경적 특성으로 부친, 형제나 자매, 또는 친구나 애인에게 음주나 약물문제가 있는 대학생들이 알코올의존자 집단에 많았다. 알코올의존자 중에는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알코올의존이 주변의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는 심리적 특성들 중의 많은 요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자신에 대한 통제, 흡연, 여가, 도박, 공격적 성향, 충동적 성향, 건강에 대한 염려 등에서 알코올의존자는 일반음주자와 유의하게 달랐다. Zucker 등(1986), Sutker와 Allain(1988), Rogosch 등(1990)이 공격적 성향과 충동적 성향이 알코올의존의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알코올의존자 중에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의존이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의 기존의 음주문화는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 인간관계나 업무도 잘 하는 능력있는 사람인 것으로 간주하여왔다. 이러한 음주문화의 영향으로 운동에 적극적인 대학생이 술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월간 가구소득, 현재의 금전가치와 미래의 금전가치 사이의 선호에는 일반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과 가치선호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알코올의존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서적 요인으로 술을 마시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에서는 알코올의존자들이 일반음주자들보다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풀림 등의 차원의 감정과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차원의 감정에서는 유의하게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노, 낙심, 들뜸 등의 차원의 감정에서는 일반음주자 집단과 알코올의존자 집단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흥분됨, 근심없음, 건강함 등의 차원의 감정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편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정으로는 사교적임, 친근함, 행복함, 긴장이 풀림 등의 차원의 감정 수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흥분됨, 근심 없음, 건강함 등의 차원의 감정, 분노, 낙심, 들뜸 등의 차원의 감정, 슬픔, 외로움, 따분함 등의 차원의 감정에서 알코올의존자 집단이 일반음주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종류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코올의존의 원인으로 정서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Quirk, 2001).

NAST로 판정한 알코올 의존자 집단과 일반음주자 집단 사이에는 인성적 특성들 중에서 Mf와 Pa 척도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 차이가 있었다. 인성검사와 알코올의존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외국의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일부 연구들은 인성적 특성이 알코올의존와 큰 연관성을 보였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알코올의존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Zung(1978)는 DWI 단속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과 결혼상태는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과 연령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들을 합한 변수의 설명력은 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인성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을 경우 설명력이 34%로 상승하여 인성변수들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nowden 등(1984), Lapham 등(1998), Cavaiola 등(2003)의 연구들도 인성적 특성이 음주운전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MPI와 알코올의존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은 대부분 알코올의존 치료시설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법규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된 연관

성을 일반 인구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Svanum 등, 1994)도 있다. MMPI 관련 인성변수와 알코올의존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외국의 연구들이 대부분 알코올 치료시설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들이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 정서적, 인성적 특성들이 알코올의존와 연관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의 알코올의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대학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알코올의존에 대한 대책은 알코올의존의 원인 파악과 아울러 알코올의존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확보될 때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표본규모가 작아 동질적인 대학생 중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매우 적게 포함된 점이다. 대학생 중에는 인성검사 결과 임상적 진단이 내려질 정도의 학생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후의 과제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하기 보다는 사회적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성적 특성보다는 사회성이 대학생의 알코올의존을 보다 잘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군복무, 부모에 대한 과다한 의존성,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갈망, 이성문제 등 한국적 특수성에 의한 요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추후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시기에 이르면 단기적인 급성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인성은 비교적 장기적 환경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차를 감안하는 경시적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성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의 강좌 수강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제약이 있다. 보다 대표성있는 표본추출을 통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반음주 대학생과 알코올의존 대학생 사이의 다양한 요인들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더 이루어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각 요인과 알코올의존의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추후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 정서적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음주시작 시기를 통제하여 이들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접수일자: 7월 19일, 게재확정일자: 9월4일>

참고문헌

김영란. 대학생의 음주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9;25(2):24-33.

김광기. 알코올 문제의 사회적 의존에 대한 소고.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5;12(2):146-161.

윤혜미.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과학연구논총 2000;(3):1-15.

이원재. 음주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6;13(2):97-114.

이원재, 반덕진. 일부 대학생들의 건강관련 행위.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9;16(2):157-171.

이원재, 박정옥, 윤병준, 이석민, 문상식, 이시백. 문제음주 습관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0.

임상심리학회.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 요강. 국가이던스 1994.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박종순. 대학사회의 절주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1;2(1):67-1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1999.

Akers R.L., Krohn M.D., Lanza-Kaduce I., Radosevich M.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9;44:636-655.

Bates M.E., Labouvie E.W. Familial alcoholism and personality-environment fit: A developmental study of risk in adolescence. *Annals of New York Academic Science 1994;*708:202-213.

Biddle B.J., Bank B.J., Marlin M.M. 1. Parental and Peer Influence on Adolescents. *Social Forces* 1980;58(4):1057- 1079.

Brooks J.S., Cohen P., Whiteman M., Gordon A.S. Psychological risk factors in the transition from moderate to heavy use or abuse of drugs. in Glantz M, Pickens R (ed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90;* 51: 310-318.

Cavaiola A.A, Strohmetz D.B., Wolf J.M., Lavender N.J. Comparison of DWI offenders with non-DWI individuals on the *MMPI-2* and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Addictive Behaviors* 2003;28(5):971-978.

Curran G.M., White H.R., Hansell S. 1997. "Predicting problem drinking: A test of an interactive social learning model".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21(8):1379-1390.

Glaser B.A., Calhoun G.B., Petrocelli J.V.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male juvenile offenders by adjudicated offences as indicated by the MMPI-A.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02;29(2):183-201.

Zhang L., Welte J.W., Wieczorek W.F. 1997. "Peer and parental influences on male adolescent drinking". *Substance Use & Misuse,* 32(14):2121-2136.

Hatterer L.J. 1982. "The addictive process". *Psychiatric Quarterly,* 54:149-156.

Huba G.J., Bentler P.M. 1977. "A developmental theory of drug use: Derivation and assessment of a causal modeling approach", in Baltes P.B., Brim O.G.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Jaffe L.T., Archer R.P. 1987. "The prediction of drug use among college students from MMPI, MCMI, and sensation seeking scla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2):243-253.

Johnson V. 1988.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Drug & Alcohol Abuse,* 14(3):419-439.

Lapham S.C., Scipper B.J., Chang I., Kennedy R. 1998. "Factors related to miles driven between drinking and arrest locations among convicted drunk drive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0(2);201-206.

Peele S. 1985. *The Meaning of Addiction: Compulsive Experience and Its Interpretat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Quirk S.W. 2001. "Emotion concepts in models of substance abuse". *Drug & Alcohol Review,* 20(1):95-104.

Rogosch F., Chassin L., Sher K.J. 1990. "Personality variables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family history risk for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4):310-318.

Schuckit M.A., Klein J., Twitchell G., Smith T. 1994. "Personality test scores as predictors of alcoholism almost a decade lat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7): 1038-1042.

Snowden L.R., Campbell D.R., Nelson L.S. 1984. "The MMPI and Problem Drinking: Statistical Controls and Multifactor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271-8.

Stacy A.W., Newcomb M.D., Bentler P.M. 1991. "Personality, problem drinking, and drunk driving: Mediating, moderating, and direct-effect models". *Journal of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60: 795-811.

Sutker P.B., Allain A.N. Jr. 1988. "Issues in personality conceptualization of addictive behavi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72-182.

Svanum S., Ehrmann L. 1993. "The validity of the MMPI in identifying alcoholics in a university setting". *Journal of Studies in Alcoholism,* 54(6):722-729.

Svanum S., McGrew J., Ehrmann L. 1994. "Validity of the substance abuse scales of the MMPI-2 in a college studen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3): 427-439.

Wechsler H., Lee J.E., Kuo M., Lee H. 2000. "College binge drinking in the 1990s: A continuing problem".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199-210.

White H.R., Johnson V., Horwitz A.V. 1986. "An application of three deviance theories to adolescent substance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 21(3):347-366.

White H.R., Bates M.E., Johnson V. 1990. "Social reinforcement and alcohol consumption, in Cox WM (eds): *Why People Drink: Parameters of Alcohol as a Reinforcer,* New York: Gardner Press.

http://whqlibdoc.who.int/hq/2001/WHO_MSD_MSB_01.6a.pdf.

Zucker R.A., Lisansky G.E.S. 1986. "Etiology and alcoholism reconsidered: The case for a biopsychosocial process". *American Psychology,* 41:783-793.

Zucker R.A., Noll R.B. 1982. "Precursors and developmental influences on drinking and alcoholism: etiology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s", in *Alcohol and Health Monograph No. 1: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Problems,*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Zung B.J. 1978. "Factor structure of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9(1):56-67.

<ABSTRACT>

Alcohol Dependency of College Students

Won-Jae Lee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Kyungwoo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alcohol drinking habit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To find how many students are alcohol dependent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problem drinking habit, the current study estimated problem drinker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problem drinking and various factors.

In 2000, 736 students reported the questionnaires. Estimated rates of problem drinkers standardized by age were 0.7% of male and 0.5% of female students by NAST, amounting 9,300 college students.

Age of initiation of alcohol drinking, alcohol or drug use problems of parents or friends, psychological factors, emotional factors, and two of MMPI sca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oderate drinkers and alcohol dependents. The moderate and problem drink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Mf and Pa average scores. However, economic facto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moderate drinkers and alcohol depend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further multivariate studies with large sample need b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ependency and its factors.

Key Words: Alcohol Dependency, NAST,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Emotional Factors, MMPI, College Student